
랍스터가 너무해

쿠소요리 시나리오

개요

PC들은 오늘 저녁을 조금 호화롭게 차려 볼까 합니다.

스테이크 재료에 와인.. 질 좋은 치즈, 부드러운 빵과 스프, 수비드 한 닭고기 살을 곁들인 로제 스파게티, 싱그러운 샐러드, 그리고...

대망의 랍스터 버터 오븐구이!

마침 아주 크고 통통한 랍스터를 저렴한 가격에 구했습니다.

비록 살아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한 번에 기절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해봅시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게, 각자 요리도구를 들고 PC1이 랍스터를 기절시키러 망치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어? 옆에 뒀던 식칼이 어디 갔죠?

식칼이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나머지 PC들이 경악한 얼굴로 도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도마는 왜... 아니?

랍스터가?

마치 불굴의 기사를 연상시키는 포스를 풍기며 식칼을 들고 있습니다.

PC들은 아주 큰일 났습니다.

과연 우리는 랍스터에게서 살아남아(?) 소중한 저녁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안내

※ 해당 시나리오는 쿠소세지와 비슷한 짧은 쿠소 전투 시나리오입니다.

인원 : 1인 이상 자유 (2인이상 추천)

룰 : coc7판

관계 : 밥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면 OK

플레이 타임 : 30분~1시간 정도 (주사위에 따라 다름)

난이도 : 下, 다만 전투룰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투 : 처음부터 끝까지 전투

로스트 : 랍스터(과연랍스터일까?)를 로스트시키지 못하면...

주의사항 : -제대로 된 신화 생물이 등장하지 않는 짧은 쿠소시날입니다. 관련해서 민감하신 분은 열람을 자제해주세요.

-전투를 할 상황만 제공하고 별달리 서술된 상황이 적습니다. 키퍼분의 임의로 개변해주세요.

-모든 개변이 자유롭습니다. 타룰로 개변해 즐기셔도 됩니다. 개변을 무단 배포하지만 말아주세요.

규칙

무기는 식기류로 통일합니다. coc7판의 전투룰을 따르나 사전에 체력을 무기(식기) 내구도로 두고 조율해주세요. 무기 내구도나 체력이 떨어져 지치는 것이기에 죽지는 않는 것으로 합의 보시다. 랍스터 잡아먹으려다 죽는 건 좀 그러니까요.

테스트 플레이에서는 2인 각각 내구도 20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래로 진상입니다만 본문과 거의 관련이 없으며 굳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상

랍스터 씨는 지구 최고의 무술가가 되고자 합니다. 바다에서는 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었죠. 범고래 범스터 씨와의 대결마저 이겨낸 랍스터 씨... 그는 바다의 적에게 흥미를 잃어 육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필, 처음으로 만난 육지의 존재가 대 요리왕, '애꾸눈의 버거' 씨였습니다. 그는 '식재료 앞에서라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있는, 최고의 요리인이었죠. 랍스터 씨는 랍생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흘 밤낮의 사투 끝에, 두 무술가(?)의 대결은 무승부가 나고, 결국 그 자리에서 한 명과 한 마리는 기절하고 맙니다. 애꾸눈의 버거 씨야 인간이었으니 구급차에 실려갔지만... 랍스터 씨는 수산시장으로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사지(?)를 구속당해 도마 위에 올라가있는 랍스터 씨, 해초를 먹던 힘을 다해 구속을 풀고 눈앞의 랍스칼리버(그냥식칼입니다.)를 뽑아 손에 들었습니다. 랍스터 씨는 과연 PC들에게서 살아남아 무술가의 길을 계속 정진해나갈 수 있을까요?

랍스터 씨 *독자적 해석(...)이 있습니다.

평범한 랍스터는 아닙니다. 조스 오모그의 조각상이 위치한 바다에서 나고 자라 신화생물의 기운을 흡수해 강해졌습니다. 물론 본랍스터는 조스 오모그에 대해 아는 건 없습니다.

근력 90 민첩 80 정신 90
건강 55 외모 50 교육 20
크기 20 지능 20

근접전(도검) 70, 근접전(격투) 60, 인간다루기 55, 그외 자유

랍스칼리버(식칼) 대미지 1d4+3+db
내구도 [15~30] (*참여 인원에 따라 내구도를 조정해주세요. 제시된 수치보다 더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심해인(브론즈 4티어) 씨 *제대로 된 신화생물이 아닙니다(...)

평범한 심해인은 아닙니다. 좀 맛 좋은 심해인입니다. 연어 맛이네요. 무술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티어가 브론즈 4티어로 심해입니다. 플래티넘인 랍스터 씨를 질투해 막타만 노리고 있다가 탐사자들이 랍스터를 쫓아패면 이후 참전해 랍스터만을 노려 공격합니다. 탐사자-랍스터가 동료가 될 수 있기 위해 추가한 요소로, 생략 등의 개변이 자유롭습니다.

기본 룰북 299p 페이지의 특성치와 기능치를 따릅니다.

흐름

큰 흐름은 **coc7**판의 전투룰을 따르되, 최대한 살생을 피해주세요.

1~4라운드

평범하게 전투합니다.

랍스터는 사실 인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투 중 탐사자들이 기행을 벌이면 입을 열어 말을 해주세요. (*테스트 플레이에서는 탐사자가 금괴로 랍스터를 유혹해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하는 랍스터를 보면 이성 체크 진행합니다. (0/1d3)

5라운드

5라운드 진입or랍스칼리버 내구도 10 내외에서 탐사자 전원 듣기 판정을 진행해주세요.

[듣기 성공] 당신은 창문 밖에서 쉬이익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길합니다.

[듣기 실패]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창문 밖에 있는 심해인(브론즈 4티어) 씨의 숨소리입니다. 랍스터의 막타를 노리다 흥분해서 숨소리가 커진 상태입니다.

창문을 확인하면 심해인과 눈이 마주치고 심해인이 주방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이성체크를 진행해주세요. (0/1d6)

심해인 참전

심해인이 참전하면 잠깐의 만담 타임이 있습니다.

심해인(브론즈 4티어) “쉬이익! 드디어 기회가 왔다 랍스터! 네 플래티넘 칭호를 이번에는말로 가져가 주마!”

랍스터 “? 아니? 찐 심해 녀석이잖아?”

심해인 “시끄럽다!!!! 각오해라!”

랍스터 “이봐! (탐사자들을 향해) 너희! 내 동료가 되어라!”

랍스터가 모두에게 동료가 되는 것을 제안합니다. 탐사자는 랍스터와 팀을 먹고 심해인을 물리쳐도 되고, 그냥 둘 다 후드리잡잡해도 상관없습니다. 탁 분위기에 따라서 진행해주세요. 기본적으로 랍스터 씨는 탐사자들의 무술 실력(?)을 인정한 상태로 동료로 삼고 싶어 합니다.

전투의 마무리

식기 내구도가 모두 0이 되거나 랍스터 씨가 사망하거나 심해인 씨가 사망하면 전투가 종료되었습니다. 진행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권장합니다. 키퍼분 고생하셨습니다!

이하 페이지는 엔딩 목록이며 창조 엔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테스트 플레이에서는 랍스터와 탐사자 1인이 결혼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진짜 아무거나 가능합니다.

엔딩 **A**

[초월한 우정] **A-1-** 랍스터 씨와 편은 먹었지만 심해인 씨를 요리해먹진 않았다.

[초월한 우정과 맛있는 연어파티] **A-2-** 랍스터 씨와 편을 먹어 심해인 씨를 죽이고 요리해먹었다.

엔딩 **B** [해산물 파티]

-둘 다 무시까고 요리해먹었다.

엔딩 **C** [천상인 씨]

-심해인씨에게 랍스터 씨의 막타를 양보했다.

엔딩 **D** [속보입니다.]

-졌다.

엔딩 **A** [초월한 우정] [초월한 우정과 맛있는 연어파티]

-랍스터 씨와 편을 먹어 심해인 씨를 죽이고 요리해먹었다.

랍스터 “너희들! 정말 잘해줬다. 너희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러니까..말이지, 정말 고..고...고...”

“고구마 먹어라!”

정말인지 솔직하지 못한 랍스터입니다. 이제 이게 말하는 것은 익숙해질 지경이네요.

처음엔 버터 오븐구이를 해먹으려 가져온 녀석인데, 큰 전투를 넘고 보니 친숙해진 기분도 듭니다.

비록 주방은 엉망이고 연어 냄새가 나는 심해인이 한쪽에 널브러져 있지만요. 연어 냄새..? 이거 맛있으려나요.

[+A-2 지문] 여러분은 랍스터 버터 오븐 구이를 포기하고 연어요리에 도전합니다. 연어 회, 연어 카나페, 연어 스테이크.. 등등등. 그럴싸한 연어요리들이 잔뜩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맛있겠어요!

시나리오 보상 이성회복 +1d3, 랍스터와의 친분

A-2엔딩 추가보상 맛있는 연어요리를 먹었다 이성회복 +1d2

엔딩 **B** [해산물 파티]

-둘 다 무시까고 요리해먹었다.

...두 명.. 아니 두 마리가 다 쓰러졌습니다. 휴.... 이제 진짜로 요리를 해먹을 수 있어요.

비록 주방은 엉망이고 연어 냄새가 나는 심해인이 한쪽에 널브러져 있지만요. 연어 냄새..? 이거 맛있으려나요.

랍스터 버터구이의 맛은 일품이었습니다. 짭쭼름하게 간이 밴 포슬포슬한 살에 비싼 버터가 사르르 스며들어 극상의 맛을 이끌어냈습니다.

심해인... 아니 연어 요리도 꽤 좋았어요. 비록 랍스터의 맛을 따라잡진 못했지만.. 가끔은
질보다 양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저녁을 무사히 마치고, 배부르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시나리오 보상 이성회복 +1d3

맛있는 랍스터요리를 먹었다 이성 +1d5

맛있는 연어요리를 먹었다 이성 +1d3

엔딩 **C** [천상인 씨]

-심해인 씨에게 랍스터 씨의 막타를 양보했다.

듣고 보니 조금 불쌍합니다.. 심해에서 팀원들이 얼마나 망한 팀원만 걸렸으면 여기와서
이러고 있을까요? 안쓰럽거나 혹은 각자의 이유로 랍스터의 막타를 심해인 씨에게
양보합니다. 그랬더니... 어라? 심해인 씨의 모습이?

축하합니다! 심해인(브론즈 4티어) 씨는 천상인(플래티넘) 씨가 되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 보상 이성회복 +1d4

엔딩 **D** [속보입니다.]

-졌다.

모두가 쓰러지면... 랍스터 씨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돌아선 뒷모습이 빛을 받아
긴 그림자가 지는 것이 아주 간지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뉴스에선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모지역에서 요리를 하던 일행이 숨 쉰 채 발견되었습니다.”

“일행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랍스터가 저지른 일이라고 하는데요...”

... 하하, 누가 믿어줄까요.

시나리오 보상 없음.

후기

아... 간만에 들고 온 시날이 좀 많이 이상하네요.. 소세지 후속작이 써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쿠소-진지-쿠소-진지-쿠소였으니 다음에는 진지한 시나리오를 들고 와보겠습니다. 다들
즐겁고 드립 넘치는 세션이 되시길 바랍니다!